

1994년도 한국농업기계학회 주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공급과 사후
봉사를 위한 토론회』 발표문
(1994. 9. 6.)

농업기계 대리점의 운영실태와 당면과제

김 용 서

국제종합기계(주) 수원대리점 사장

평소 존경하는 농업기계학회장을 비롯한 학회 회원님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공급 및 사후봉사를 위한 토론회를 갖도록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나라 농업정책 중 가장 성공을 거두게 된 것 또한 농업기계학회와 농수산부 농업기계 관계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연구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농업기계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 관계자와 자리를 같이 하게된 것도 영광이며, 이는 대리점들의 커다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작금에 와서 농업기계 대리점의 당면과제는 농협과의 관계를 짊고 넘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농협과 대리점간의 관계는 얼마 전만 해도 상호보완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헐뜯게 되었으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보다 정부의 갖가지 특혜를 받아가며(비료, 농약 보조업무취급, 농자재, 각종 생활품) 금융업무에 치중한 나머지 농민의 원성이 두려워 겨우 시작한 농업기계 판매사업 역시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관행부터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 일선 단위 조합의 입장(손익계산 능력)도 모르고 농업기계 판매 및 A/S 사업에 참여토록 강요하고 있다.

둘째 : 일선 단협의 직접구매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예:구매사업하여도 중앙보다 값싸게 중앙보다 결제 기일을 길게 하는 등의 갖가지 방법으로 제약을 가하고 있음).

셋째 : 중앙 정산제 수수료(1.5%) 및 취급 수수료(1.5%)(년간 6-7천억 정산시 약100억 수익)를 즉각 중지하라(정산방법 단위 조합용자 즉시 본사송금 개선).

넷째 : 일선 단협 취급 수수료 1.5% 중앙수탈 중지하라(일선 단협의 적자 가중의 원인으로 이와 같은 정산 수수료 및 취급 수수료 3%는 세계 금융시장 이자에 버금가는 것임).

다섯째 : 중앙농협은 일선농협의 신규센타 확대를 중지하라.

위와 같이 중앙농협은 어려운 농민을 담보로 이제껏 갖가지 사업을 통해 비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제 와서 그나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농업기계마저 참여하니, 우리 전국 대리점들은 대정부 농업기계정책의 변화를 믿고 참고 견디어 온 대리점들의 자리마저 수탈하여 가려는 농협의 처사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농업기계 대리점은 1970년대 4%의 적은 수수료에도 언젠가는 수수료가 인상될 것을 기대하며 견디어 왔으나, 농업기계 판매 수수료가 7%로 인상되면서 농협중앙회가 농업기계 판매사업을 재개함으로써 대리점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농협중앙회의 처사는 아이들 턱에 붙은 밥풀까지도 떼어먹자는 것으로 우리 대리점은 극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농협은 1974년도부터 농업기계 판매에 함께 참여했다가 (대리점 2%, 농협 2%) 경상 수지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사장된 제품 및 부품까지도 반강제로 대리점에게 넘겨 주더니, 수수료가 7%로 인상에 따라 또 다시 농민을 담보로 농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중앙농협은 농업기계 판매사업을 통해 연간 약100억원의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중앙농협은 그 어려운 일선 단위 조합의 도움은 커녕 1.5%의 취급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횡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일선 단위 조합장님들께서 와 계시다면 한 번 묻겠습니다. 단위 농협과 대리점은 대결 구조가 아닌 농민보호 및 견제기능을 가져야 하며, 농민을 위한 양질의 농업기계공급과 A/S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농협중앙회의 횡포에 말 못하는 사정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희비가 엇갈려도 선은 언제나 승리하듯이 일선 농협의 노고에 우리 대리점들도 항상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듯이 중앙농협도 자율적으로 일방적인 중앙농협의 그릇된 관행을 시정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리점들은 그간의 농업기계정책의 어려움에 순응하며 이기려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멀쩡하던 하늘이 검게 변하고 천둥번개가 치고 있으니 어떻게 피해갈까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전문성이 결여된 일선 농협 기사로 양질의 대농민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근간에 공급되는 각 회사의 기증을 보면 최첨단 컴퓨터 부품까지 장착되어 나온 신기종이 해마다 급증

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 전문 대리점도 새로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A/S 참여가 어려운 실정인데 하물며 5개회사의 제품과 그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으니 단위농협의 기사 능력으로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협의 횡포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써비스가 어려우면 각 회사로 전화하여 A/S를 요청하고 해주지 않으면 별별 소리를 다하니,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야하는 본사들의 고충은 보기도 안타까우며, 본사는 다시 해당 지역 대리점들에게 당신네 지역이니 한번 도와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대리점이 해결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 어떻게 농협의 정상적인 A/S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저희 대리점들은 농협 당사자에게 당부드립니다. 농업기계 판매 및 A/S는 전문적인 대리점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우연히 신문에서 국내의 가장 건실한 단위농협이 많다는 경기도 지부 산하 단위농협 153개 중에서 60개 단위조합만이 경영이 양호한 실정이고 나머지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진정 농협이 농민에게 어떠한 써비스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많은 연구를 할 때가 아닌가요? 농협은 농민에게 최대한의 값싼 이자의 금융 써비스를 제공하고 농협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것이 농협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생산된 농산물은 싸게 팔리고 밭떼기도 어려우면 썩혀 버리고 갈아엎고 하는’ 농민의 아픔을 농협은 방관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농협만 하더라도 농협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농민이 농업기계 구입자금을 융자받을 때 신용조사서 한 장으로 기계대금을 현금으로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협은 어떠한가요? 생산회사에게는 고자세로 군림하고 대리점은 미운 오리새끼처럼 취급하니 농업기계 동반자로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협만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수정을 바라며, 뚜렷하지 않은 명문 규정의 시정을 바라며, 일선 금융기관 다변화 정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계 기능인 양성도 못한 상태에서 농협센타 공동 참여는 재고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협만이 농민을 상대할 수 있는 정책을 수정하여 모든 시중은행에서도 농민을 상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기계 대리점도 비영리 단체를 만

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촉진법을 개선해야 하고, 농업기계 생산회사에 세제 및 금융 특혜 혜택을 주어 생산회사의 도산을 방지하고 활성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정바랍니다.

첫째 : 소형 농기계 반값 지원 기증별 수량 조절

둘째 : 대형기계 정액 보조지원(당초 영농 정부시책 역행, 대규모 농사 소유자 의욕 상실, 영농후계자에게 농기계 보조 지원)

셋째 : 보조 지원대상 농민에 대한 용자 실시, 용자를 연초로 조정, 행정기관 확인서 불필요화

넷째 : 나누어 먹기식에 불과한 위탁영농회사 축소 및 전업농가 확대

우리 대리점들은 20여년 동안 농업기계 정책사업 성공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왔음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디어 온 저희들이 언제부턴가 별종으로 취급당하고 있음은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잡아먹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농민을 위해 헌신적인 희생정신으로 정부를 향해 불만의 소리도 별로 없이 일해 온 저희야말로 농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전국 단위농협을 예로 들자면, 현지 대리점이 얼씬도 못하도록 농협에서 농기계 판매를 '독식'(반값 공급 및 전업 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조합의 형태는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저희들은 고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농업개방 시대가 코 앞에 닥아 왔습니다. 지금 일선에선 1997년 농업기계 개방에 대비하여 외국기업과 금융기관이 농기계 공급 참여 의사를 밝히고 시장 조사를 면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인도 모 금융회사와 몇 개의 외국 농업기계 생산회사로 부터 국내 시장과 우리 농업기계 공급 상황, A/S 지원 실태 등을 수차례에 걸쳐 그들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농협 관계자 및 농업기계 관계자 여러분! 과연 막대한 외국 자본과 100% 외국산 농기계가 우리 농촌에 밀려 온다면 그나마 어렵사리 지켜온 우리 농업기계 정책 사업은 물론 5개 농업기계 생산회사도 곧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40,000 여의 전국 대리점 가족들은 국내가 어려울 때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과의 제휴를 생각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농협

관계자 여러분! 우리 전국 대리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은 이제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전국 800여 대리점들은 지난 90년부터 매년 도산 10% 및 전업 10%로 경영악화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요망하는 일선 단위농협에 대한 개선안은

첫째 : 단위농협에서의 각 기종별 판매를 20% 이내로하고

둘째 : 단위농협은 농민 환원 수수료 및 기사 성과급 지급 2% 내지 3% 명목을 즉각 중지 하고,

셋째 : 단위농협은 이장 또는 영농회장을 등원한 농기계 신청을 즉각 중지 하고,

넷째 : 각 회사별 대리점은 선공급 방지를 약정하고 있으니, 단위농협 또한 선공급을 즉각 중지하기 바라며,

다섯째 : 대리점에서 양성한 기사를 스카웃해 가는 행위를 중지하고,

여섯째 : 단위농협은 용자시 대리점을 고객과 같이 생각하고 용자 완료 즉시 용자 보고토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일곱번째 : 단위농협 수리센터의 임대사업을 중지하고,

여덟번째 : 단위농협 공급분도 수수료증 발급후 공급하기 바라며,

아홉번째 : 농업기계 공급 여부를 증빙하는 사진 첨부를 중지하기 바라며,

열번째 : 농기계를 취급하지 않는 단협 관내에서 농기계 판매 행위를 중지 하고,

열한번째 : 농민의 신용도를 약점으로 농협에서 구매 강요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협과 대리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농민에게 그간 부족했던 대농민 판매 A/S에 주력하여 진정한 동반자로서 농민에게 존경받고 서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저희 전국 대리점 가족들은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전국 대리점 협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농기계 관계자 여러분과 농협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